|  |  |  |
| --- | --- | --- |
|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 |
| **2014년 3월 14일**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
| **총 3장** | **담당: 홍보실 오가혜 연구원** |
| **전화: 02-3701-7377** |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 |

**한국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우리 국민은 안보 파트너로 미국을, 경제 파트너로는 중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겸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이 이번 달 10일~1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산데일리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56.6%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 미국을, 15.5%는 중국을 뽑았다. 미래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국가 역시 미국(46.9%), 중국(26.0%) 순이었다.

반면 한국인이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국가는 중국이 미국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7.7%의 응답자는 현재 한국 경제에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34.2%는 미국이 중요한 것으로 답했다. 향후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국가 역시 중국(57.9%), 미국(2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과반이 넘는 20대가 현재와 향후 안보 파트너, 현재 경제 파트너로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20대 역시 향후에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념성향별로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국가와 경제에 중요한 국가를 선택하는 질문 모두에서, 진보층이 보수층에 비해 중요한 국가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보수층은 진보층에 비해 중요한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수층이 진보층에 비해 친미 성향에 가깝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김지윤 여론·계량분석센터장은 “보수 성향의 현 정권이 집권 초기 중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이 상당수 보수층의 중국 호감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아산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참고자료**

**표 1.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명 | 미국 | 중국 | 기타 | 잘모름 | 무응답 | 계 |
| 전체 | | (1000) | 56.6 | 15.5 | 13.9 | 11.6 | 2.3 | 100.0 |
| 연령별 | 20대 | (186) | 63.2 | 8.1 | 19.9 | 8.8 | 0.0 | 100.0 |
| 30대 | (206) | 53.8 | 21.2 | 15.4 | 7.1 | 2.5 | 100.0 |
| 40대 | (221) | 54.0 | 19.7 | 13.9 | 9.9 | 2.6 | 100.0 |
| 50대 | (188) | 57.6 | 16.4 | 12.3 | 11.5 | 2.3 | 100.0 |
| 60세 이상 | (199) | 55.3 | 11.2 | 8.4 | 21.2 | 3.9 | 100.0 |
| 이념성향별 | 진보 | (184) | 61.6 | 14.2 | 14.9 | 8.2 | 1.2 | 100.0 |
| 중도 | (424) | 60.5 | 14.6 | 13.8 | 8.3 | 2.8 | 100.0 |
| 보수 | (285) | 55.4 | 19.8 | 16.4 | 7.1 | 1.3 | 100.0 |

**표 2. 향후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명 | 미국 | 중국 | 기타 | 잘모름 | 무응답 | 계 |
| 전체 | | (1000) | 46.9 | 26.0 | 11.5 | 13.6 | 2.0 | 100.0 |
| 연령별 | 20대 | (186) | 55.9 | 14.8 | 16.6 | 12.8 | 0.0 | 100.0 |
| 30대 | (206) | 39.6 | 36.6 | 13.5 | 8.3 | 2.0 | 100.0 |
| 40대 | (221) | 42.9 | 34.6 | 11.2 | 9.4 | 1.9 | 100.0 |
| 50대 | (188) | 49.3 | 24.7 | 10.2 | 13.8 | 2.0 | 100.0 |
| 60세 이상 | (199) | 48.1 | 17.1 | 6.0 | 24.5 | 4.2 | 100.0 |
| 이념성향별 | 진보 | (184) | 51.1 | 29.0 | 12.6 | 6.3 | 1.1 | 100.0 |
| 중도 | (424) | 45.7 | 25.0 | 13.6 | 13.6 | 2.1 | 100.0 |
| 보수 | (285) | 51.8 | 29.1 | 11.3 | 6.1 | 1.8 | 100.0 |

**표 3.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명 | 미국 | 중국 | 기타 | 잘모름 | 무응답 | 계 |
| 전체 | | (1000) | 34.2 | 47.7 | 4.6 | 11.8 | 1.8 | 100.0 |
| 연령별 | 20대 | (186) | 53.1 | 33.8 | 3.5 | 9.0 | 0.6 | 100.0 |
| 30대 | (206) | 41.4 | 45.7 | 4.8 | 6.7 | 1.4 | 100.0 |
| 40대 | (221) | 25.2 | 60.8 | 6.3 | 6.4 | 1.3 | 100.0 |
| 50대 | (188) | 22.1 | 60.9 | 4.3 | 10.8 | 1.8 | 100.0 |
| 60세 이상 | (199) | 30.4 | 35.6 | 3.6 | 26.6 | 3.7 | 100.0 |
| 이념성향별 | 진보 | (184) | 41.9 | 47.6 | 2.9 | 6.1 | 1.6 | 100.0 |
| 중도 | (424) | 32.9 | 48.9 | 6.2 | 10.2 | 1.8 | 100.0 |
| 보수 | (285) | 32.8 | 54.5 | 4.3 | 7.0 | 1.5 | 100.0 |

**표 4.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명 | 미국 | 중국 | 기타 | 잘모름 | 무응답 | 계 |
| 전체 | | (1000) | 21.3 | 57.9 | 5.5 | 13.5 | 1.7 | 100.0 |
| 연령별 | 20대 | (186) | 29.5 | 51.0 | 9.2 | 8.9 | 1.5 | 100.0 |
| 30대 | (206) | 22.5 | 61.1 | 6.6 | 7.3 | 2.5 | 100.0 |
| 40대 | (221) | 13.3 | 74.4 | 4.0 | 7.9 | 0.4 | 100.0 |
| 50대 | (188) | 17.4 | 62.5 | 6.1 | 12.4 | 1.6 | 100.0 |
| 60세 이상 | (199) | 25.1 | 38.6 | 2.2 | 31.4 | 2.8 | 100.0 |
| 이념성향별 | 진보 | (184) | 19.9 | 68.3 | 4.8 | 6.0 | 1.0 | 100.0 |
| 중도 | (424) | 22.0 | 57.3 | 7.0 | 11.2 | 2.5 | 100.0 |
| 보수 | (285) | 21.1 | 62.6 | 5.3 | 10.1 | 0.9 | 100.0 |

**조사개요**

**아산데일리폴**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표집방법:** 지역, 성, 연령별 할당추출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조사기간:** 2014년 3월 10일 ~ 12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관련 문의: 김지윤 연구위원(02) 3701-7354, jiyoon@asaninst.org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mailto:eclee@asaninst.org)

|  |
| --- |
|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